사랑 없인 못 살아, 책방으로 오라

청년잇소 독립서점 '서로 사랑하세요' 이혜미 책방지기

책과 사람이 만나는 동네 아지트
사랑과 온기 나누는 책방지기 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 없이는 못살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의 '누'를 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발견하고 나누고픈 독립서점 '서로 사랑하세요'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미입니다. 책과 사람과 이야기가 만나는 문화공간 아지트, 저마다의 서사가 모여 반짝이는 북살롱, 따뜻하고 아늑한 '책방 서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그저 재미지게 살고 싶은 책방지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2024년 11월에 작은 동네 책방을 시작했고 지금은 2년차, 아직 병아리 책방지기입니다. 책으로 연결되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 많은 선배 책방들을 동경하며 책을 파는 곳 이상의 책방이 되고 싶어서, 마니또 블라인드 북, 마당에서 북크닉, 낭독모임, 단어독서모임과 같은 재밌는 책모임도 하고, 공간과 기회가 필요한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 인디 뮤지션 공연과 나눔 콘서트, 독서 편식을 줄이고 지역 작가와 작품을 알리는 북토크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오월서가, 청소년 책사줄게 프로젝트, 북마켓이나 외부행사 등 지역과 문화의 가치가 담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나를 세우는 문장의 힘

-독서모임, 공연, 전시, 그리고 '책 사줄게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사랑하고 계신데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러블리! 한 말들만 하는 것 같아 조금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어렵지 않지만 결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에서 연습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과 내가 할 말이 다정하고 안전한지 고민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하고 분노하는 것,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혐오·차별하지 않는 것, 조건 없이 응원하고 사소하게 감사하는 것…. 다양한 책문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아마도 평생에 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세계의 사랑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책방 서사'에서의 어느 순간이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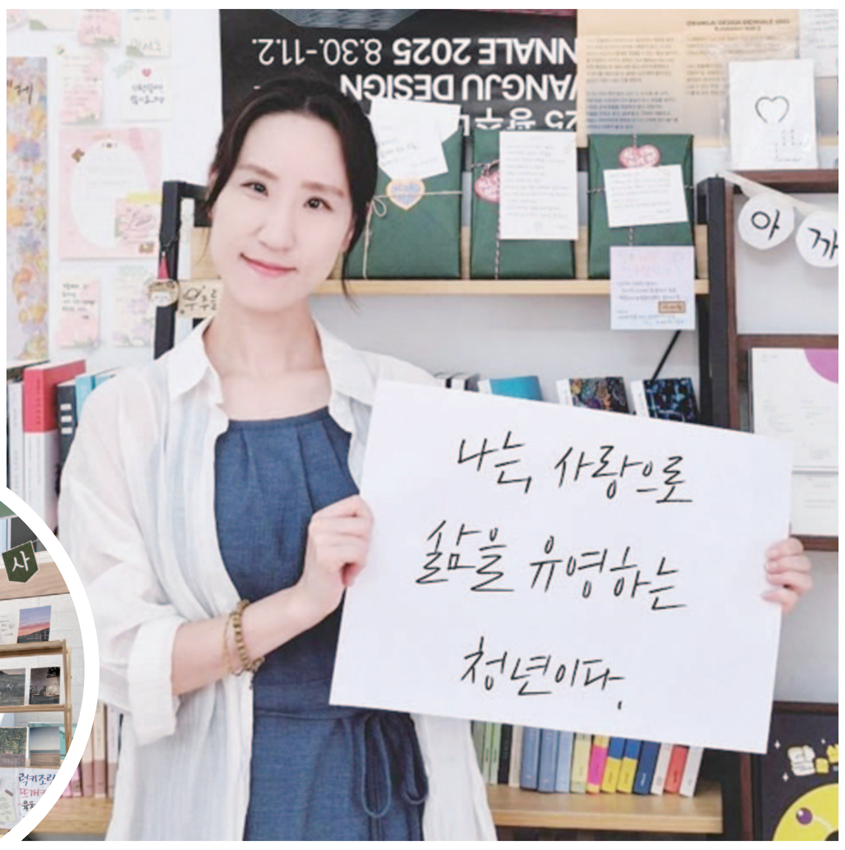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는 게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일을 꺼내볼게요. 짝꿍지기가 좋아하는 메론 소다가 예쁘게 그려진 독립출판 시집을 입고했었는데, 그 시집의 작가가 가까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들른 동네책방 서가에 내가 쓴 시집이 꽂혀있는 걸 발견하는 경험, 수줍은 학생인 줄만 알았던 손님이 쓴 시집에 친필 사인을 받는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여름밤 공연 때 큐레이션한 여름 책 10권 중에 하나로 그 책을 선정하고 작가님도 초대했어요. 졸업반이라 바쁘고 고민도 많을 시기인데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다며 활짝 웃는 작가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보람찼답니다. 다음에 꼭 저희 책방에서 작가님 북토크 열기로 했어요!

-지금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소설집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를 강력추천 드리고 싶어요. 제목만 보면 거대한 재난이나 허무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공현진 작가 특유의 위트 있는 문체로 내일의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가득 전해주는 책이에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헤엄쳐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이 불안함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 더 외로울 때 한 번 읽어보세요! 무기력한 세상의 끝에 다다르더라도 한 걸음 다시 딛을 용기를 주는 문장들 속에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책방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폐업하면 실패 경험'이라고 걱정인 듯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던 지인에게 '성공 경험이지'라고 빽- 소리를 쳤었는데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했던 날들'이라 생각하며 쿨하게 떠나기엔… 제가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오래오래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로 살면서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며, 어디에나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이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먼 미래에 월세 안 내는 책방을 운영하는,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재밌는 일을 즐기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이혜미 책방지기.

백발 할머니 돼도 책방 지킬 것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상은 알쏭달쏭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만연한 요지경이라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다'는 노래 가사만큼 수많은 사랑 중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랑의 모양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해요. 어떤 문제, 시련, 불행 앞에서도 기꺼이 사랑을 맨 앞에 꺼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하고 찬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책은 까마득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이자 반려템이에요. 광주에도 자랑하고픈 멋진 독립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결이 포개지는 책방들을 찾아보고 가차이 지내다보면 나를 오롯하게 세우는 힘이 길러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책방지기로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하는 루틴이 있어요. 불 꺼진 책방을 향해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 만나자, 사랑해!" 라고 인사를 하면 다음날에도 책이 팔리더라구요.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야무진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건강히 지내다 만나요, 사랑합니다!"

신슬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